



2024 교회 표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요 10:11)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상 진실케 하나님의 은혜
기 도	최의순 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15장18절-16장4절
특별찬양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찬양대-
설 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찬336)
*봉헌기도/축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헌금: highland.giving@gmail.com)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 찬양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 목사) [hellofromhighland\(EM Web\)](mailto:hellofromhighland@emweb.com)

◀양보다는 질입니다!▶

요즘 부쩍 교인의 수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던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의 현황을 활발하게 조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교인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큰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시기 때문에,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거품이 빠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할까?'를 고민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참 성도들로 변화가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으로 성장해가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박목-

◀ 광고 ▶

- 4월 구역모임 안내: 1구역-오늘 4pm 식당(섭검: 최의설 장로 가정), 2구역-오늘 1:30pm 교회(섭검: 이영길 장로 가정), 4구역-오늘 3:30pm 교회(섭검: 조병래 집사 가정)
- 어린이 주일: 5/5 주일 예배 후 주일학교를 위한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 아버지 주일: 5/12 주일
- 친교: 이번주- 최임석 장로 가정/ 다음주-이정하 집사 가정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Sophia Cho(수술 후 회복)
- 다음주 기도: 김태중 장로/ 금요 찬양예배 기도: 한문선 권사
- 4월 뒷정리: EM/ 5월 뒷정리: 1구역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강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캄보디아 - 김석훈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구아 - 정연호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켈런지 교회입니다!